

# 1.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



(퇴계 태실)





퇴계는 7남매 중  
6형제의 막내였다.

와 귀엽다!



아버지 진사 이식은 40세에 세상을 떠났다.  
퇴계가 태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이다.

여보, 먼저 가서  
미안하오. 아이들을  
부탁해요.



그때 어머니는 33세 였는데

바쁘다,  
바빠



밭에 나가  
일하고 올테니  
큰애가 동생들  
데리고 집  
잘 봐라.

네 다녀  
오세요.



남편대신 집안을 지키고  
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 
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.



어머니는 밤낮 없이 농사 일에 매달려 별 탈 없이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.

아주머니  
좀 쉬었다  
하세요.



나도 쉬고싶지만  
어린 것들 생각하면  
어찌 그럴 수 있나요?



특히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다.

우리 아들,  
서당에 가면  
어떡한다?

훈장님 말씀  
잘 들어요!



웁지,  
잊지 말아라.

예 어머니,  
잘 다녀오겠습니다.



어머니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스스로 깨우쳐 생각이 깊었다.

안 배웠다고  
낮 놓고 기억자도  
모르는 건 자랑이  
아니야.



어머니의 열성적인 자녀교육으로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났다.

용모를 단정히 하고  
언행을 바르게 해라.  
늘 열심히 공부하고  
우애있게 지내거라.

형님,  
어머님의 은혜가  
하늘과 같습니다.

